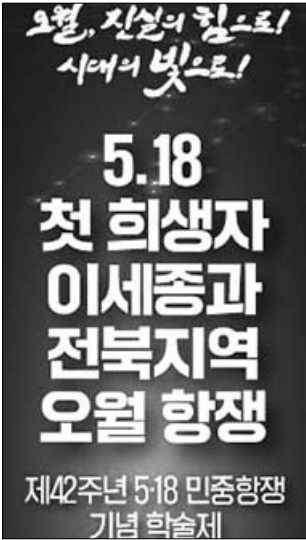


5.18 42주년 맞아 다양한 행사 개최

14~27일, 전북대 중심으로 5·18 청소년가요제·민중항쟁 전북기념식·이세종 열사추모식·5·18 학술제 등 다양한 행사 진행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전북지역에서 다양한 추모와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5·18 전국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 추모식은 물론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5·18 학술제도 열린다.

제42주년 5·18 민중항쟁기념 전북행사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14~27일 전북대를 중심으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전북행사위원회는 먼저 14일 오후 2시 노송광장에서 제42주년 5·18 청소년가요제를 진행한다. 이 가요제는 5·18 정신과 의미의 세대 전승을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진행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

이어 17일 오후 5시 전북대 이세종 열사 추모비 앞에서 제42주년 5·18

민중항쟁 전북기념식과 이세종열사 추모식을 갖는다. 이 행사는 전북대와 전북대 총동창회, 전북대 총학생회와 공동 주관으로 치러진다. 추모 영상물이 상영되고 녹두꽃시합창단과 청소년가요제 우승팀의 기념 문화공연도 열린다.

앞서 전북대는 지난달부터 1억 2000만원을 들여 이 열사의 추모비가 있는 민중광장을 새단장했다.

이어 20일 오후 2~5시 전북대 박물관 강당에서 제42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학술제가 열린다. 도내에서 첫 실시되는 이번 학술제는 5·18 민중항쟁을 특정 지역에 묶어 지역적 사건으로 한정하려는 시도를 극복하고 전국화의 노력을 힘 보태기 위해 기획됐다.

학술제는 5·18 첫 희생자 이세종과 전북지역 5월 항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또 추모 기간 각 행사장에서는 5·

18 전북사건전'이 열린다. 이 사건전에서는 1980년 4~5월 신군부 세력에 맞선 전북지역 민주화운동과 이세종열사의 유품, 전북대 제1학생회관(최초의 희생자 발생지), 당시 신문 보도 등이 사진으로 제작 전시된다.

특히 오는 6월 30일까지는 '이세종 열사 유품 사진전시회'가 전북대 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열사가 사망 당시 입고 있었던 피 절은 옷, 사망확인서, 전북대 입시 수험증 등을 찍은 사진들이 전시된다.

한편 전북행사위원회에는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지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전북지역대학민주운동회, <8전북청년교육문화원 등 40여 사회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전라북도과 전주시, 전북일보사, 전주MBC 등이 후원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실시

저소득층 학생 PC 880명·인터넷 통신비 9700명 지원

전북도교육청은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이란 가정형편에 따른 교육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교육청은

2000년부터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컴퓨터 보급(1,176명), 인터넷통신비 지원(9,389명) 등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 환경 개선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9억9천여만 원, 인터넷 통신비 20억여 원 등 총 30억여만 원을 편성해 PC지원 880명, 인터넷 통신비 지원 9,700명 등 지속 운영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정의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및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학 중

인 학생이며, 인터넷통신비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한다.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은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는 경우 자동 신청되며, 도교육청은 6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8월 중 각 가정에 보급할 예정이다.

인터넷통신비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도 6월 사용분까지 1년간 지원된다.

/장은성 기자

천호성 후보 "유아교육 전면 무상화"

"전북도내 유치원 완전 무상 교육 실현 시킬 것" 사업유치원 기본운영비·행정 인건비·시설 유지비 지원

"전라북도 유치원 전면 무상 교육을 실현시키겠습니다."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는 1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우리나라는 초·중·고 전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서, "국공립에서만 전면 무상교육이고 사립 유치원은 아직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전라북도 전체 유치원 원아는 약 2만명인데, 이중 62%인 약 1만2,400명이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70%가 넘는, 도내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원아 1인당 월 평균 약 12만원의 원비(학부모 부담금)를 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년에 약 178억원을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천 예비후보는 사립유치원이 공공유치원 수준에 이르도록 지원해 유아교육을 전면 무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을 제로화하기로 했다. 유아 1인 월 평균 12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해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것.

두번째로는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각종 공과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운영비를 매월 평균 1백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세번째로, 사립유치원의 과중한 행정과 교육과정 업무 강도를 줄이기 위해 사무 및 회계 관리 지원인력 채용을 위한 기본인건비를 매월 2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이다.

네번째로는, 사립유치원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매년 평균 7백만원씩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의 교육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 협의체 운영 의지도 밝혔다.

한편, 그는 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제언했다.

끝으로 천 예비후보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제로화는 지자체가 관할하는 법인 민간 어린이집에도 적용돼야 자연스럽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전면 무상화를 통해 아이 기르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시사 및 시장 군수 등 단체장 후보들이 함께 뜻을 모아줄 것"을 제언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천보, 지역 전문 융합 인재 양성 '맞손'

산학 공동연구·현장실습 운영·산학협력 플랫폼 공동구성 등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지역의 전문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주)천보(대표 이상물)와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1일 김동원 총장 등 보직자들과 이상물 대표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학 공동연구개발 및 연구인력 교류, 산업현장 애로기술 지원뿐 아니라 전문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공동연구 및 현장실습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및 학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산학협력 플랫폼을 공동 구성하기로 약속했다.

(주)천보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기초화학 소재부터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고부가가치의 정밀화

학 및 전자재료용 소재까지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해오고 있다.

LCD, OLED, 반도체, 이차전지, 의약품 등의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를 개발 공급하고 있으며, 2019년 코스닥 상장을 이룬 경쟁력 있는 기업이다.

특히 세계적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공정소재 시장에서 세계시장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천보비엘에스를 통

해 세만급 국가산단 17만 1,000㎡에 5,125억 원을 투자해 중·대형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하는 차세대 전해질 제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새만금 국가산단 17만 1,000㎡에 5,125억 원을 투자해 중·대형 리튬이온 배터리에 사용하는 차세대 전해질 제조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공장이 준공되면 연매출 1조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가지는 회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물 대표는 "양 기관의 전문성이 농축된 기술 협업을 통해 빠르게 확대되는 정밀화학 및 전자재료용 시장과 다양한 고객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사회적 가치 구현

에 앞장서겠다"며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사업 협력 및 기술 교류를 통해 핵심소재 분야에 첫 발걸음을 내딛음과 동시에 종합정밀화학 영역 진출을 위해 협력하고 지능직한 기업과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원 총장은 "(주)천보와의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관련 산업 융합 및 산학협력 사업 채널을 확장하고 전자소재, 이차전지 등의 약품 등 서비스의 다각적인 활성화를 통해서 눈부신 발전의 기회"라며 "우리대학이 보유한 연구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해 (주)천보와 종합정밀화학 시장의 지속가능한 상호협력 체계구축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학부모네트워크, 정책협약 체결

천호성·황호진 교육감 예비후보와 '맞손'

군산학부모네트워크와 군산교육희망네트워크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천호성·황호진 교육감 예비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마련된 정책협약은 군산 관내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주요내용은 군산통합교육지원센터 설치, 마을 교육 활성화 지원, 학부모자치 활성화 지원, 교육자치 확대 등이다.

한편 같은날 동우아트홀에서는 군산 지역 학부모회 임원, 학부모,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모여 군산미래교육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렸다.

토론자로 나선 군산학부모네트워크 순천화 대표는 "이를 계기로 교육주체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육과 관련된 공적본의가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생주도 과학동아리 운영

전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다양한 과학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생주도 과학동아리 운영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학생주도과학동아리는 동아리 구성과 활동 내용 계획은 물론 예산 관리 및 집행, 과제 수행 등을 학생이 주도함으로써 잠재된 역량을 발휘하고, 흥미를 지닌 과학적 주제 탐구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도교육청은 3월 도내 고등학교 학생

으로 구성된 과학동아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180팀을 선정했다.

이들의 활동 분야는 과학탐구(물리학·화학·생물·지구과학), 과학 기반의 융합과학, 학생과제연구(과학 관련 자유 주제), 지역과학활동(지역 환경 및 과학 기관 활용 활동,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역 과학봉사활동) 등 3개 분야로, 팀당 평균 100만 원을 지원받아 12월까지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학교 대학원 후기신·편입생 모집

우석대학교 대학원에서 2022학년도 후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모집은 일반대학원과 교육, 경영문화, 국방정책 등 4개 대학원에서 석사 97명과 박사 5명 등 모두 102명을 선발한다.

4학기제로 운영되는 일반대학원은 석사과정 34개 학과에서 43명, 박사과정 28개 학과에서 5명을 각각 모집하며, 직업치료학과 석사과정은 직업치료사 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다.

이전제로 운영되는 경영문화대학원은 12개 학과에서 5명을 주말과 원격으로 운영하는 국방정책대학원은 전주 3개 학과에서 16명을 선발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경영문화대학원 석사과정에 ESG 경영학과를,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유아특수교육학과'를 각각 신설했다.

교육대학원은 전주 10개 전공에서 재교육과정 33명을 모집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16~20일까지며, 28일 구술·필기고사를 거쳐 6월 1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장은성 기자

"폐교가 웬 말이나, 중학교 적정규모화 정책 중단하라"

전주기린중 폐교 비대위 기자회견, 우선 대상 학교 지정 즉각 취소 요구

전주기린중학교 폐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1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전북교육청·전주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중학교 적정규모화 정책은 원도심 중학교 폐교 정책이자 원도심 지역을 포기하는 것이다"며 "교육부의 전주 원도심 학교 2곳의 폐교를 수용하고 이를 추진하는 전북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에 편승하는 것이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그동안 원도심 학교를 살리기 위한 어떤 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전북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이 지역사회와 학교도 모르게 이를 추진해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2월 말 공문으로 폐교 우선 대상 학교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전주교육지원청이 스위원회는 대리 기구를 앞세워 군사 작전하듯 폐교 정책을 몰아붙이는 전주교육지원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에 만들어진 '적정규모화 학교' 정책은 각 시도교육청의 반발로 밀려있다가 최근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교육감 관련한 학교의 신설과 통폐합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경제 논리에 좌우되는 것은 결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대위는 전주에서 300명 이하 중학교가 발생하는 것은 전주교육지원청의 잘못된 중학교 배정 방식에 있다고 언급했다. 익산 군산 등 모두 중학교가 의무 배정을 실시한다면서,

유독 전주교육지원청만이 학부모 학생 희망에 따라 중학교를 배정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완산구 인근에 300명 이하의 학교가 있음에도 완산구의 다른 거대 학교에 학급 증설을 요구한 것에서도 드러났다는 이유다.

이에 비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전북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의 '중학교 적정규모화 정책 철회와, 전주기린중학교 폐교 우선 대상 학교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또한 폐교 우선 대상 학교로 지정된 7개교의 연대를 모색하고 공동행동에 나서길 것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서울대 입학시정관과의 만남' 운영

도교육청, 12·13일 진행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알아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12·13일 이틀 간 창조나래 및 2층 강당에서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서울대 입학시정관과의 만남'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대 입학시정관으로부터 2023학년도 대입전형 방법을 안내받음으로써 입학전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방식과 학생선발 과정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먼저 12일 오후 2시부터는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된 고등학교 9개교를 대상으로 컨설팅이 운영된다. 13일 오전에는 6개교가 참여, 컨설팅 시간은 학교별로 50분씩이다.

특히 12일 오후 7시부터는 교사 간담회와 학생·학부모를 위한 입시설명회가 각각 진행된다.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진행되는 교사간담회도 진행되는 서울대 입학시정관과의 만남 행사에서는 학생·학부모를 위한 서울대 입학설명회와 대입전형에 대비한 고교생활 설계 방법 안내하고,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